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현상의 極相

한 상 헐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2) 결핍적 양상 |
| 2. ‘존재와 시간’의 서론에서의 양상 분석 | 3) 탁월한 양상 |
| 3. 현상의 세 양상 | 4. 세 양상들 사이의 관계 |
| 1) 긍정적 양상 | 5. 맷는말 |

1. 들어가는 말

하이데거는 그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대개 실존철학자라는 관점에서 조망되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 현존재의 본질인 ‘실존’에 대한 성격규명보다 현‘존재’에 대한 분석이 주된 관심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존재일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려는 기초존재의 정초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의主著에 명백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 그의 사상이 실존철학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보다도 존재론(내지는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우선 주목되어야 하며 그때에만 하이데거철학과 시대상황과 관계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이데거의 현‘존재’분석은 현존재적인(deseinsmäßing) ‘현상(Phänomen)’에 대한 분석이다. 현존재적인 것, 즉 존재구조와 존재이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인간존재이다. 극히 일상적인 면에도 인간은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고 본다. 이 인간현존재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一義的이 아니기 때문에, 현존재적인 것, 즉 현존재적인 ‘현상’의 다양성이 문제된다. 존재에 대한 관심이 인간에게 보편적임이 그에 대한 관심의 다양함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이데거 자신은 “존재와 시간”내에서 현존재적인 현상의 다양성을 전제하면서도 그 현상들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존재와 시간”的 전체구도 속에서 이 분류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양한 현상적 성격(phänomenale Charakteristik)을 인정하면서도 공통되는 면을 따라 현상들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그러한 분류가 시행되었으며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분류였는가는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가 분류한 현상의 긍정적(positive), 결핍적(defizient), 탁월한(ausgezeichnet) 양상들에 대한 분석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2. ‘존재와 시간’의 서론에서의 양상 분석

“존재와 시간”的序論에서 하이데거는 현상의 ‘개념’을 분석한다.¹⁾ ‘현상’이라는 표현의 의

1) Heidegger, M., *Sein und Zeit*, s. 28–31,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72. 이하의 본문에서 이

미는 φαινεσθαι라는 회람어 語源을 입각하여 '그 자신에게서 스스로 드러나는 것'(das Sich-an-ihm-selbst-zeigende)으로 밝힌다. '그 자신에게서'라는 계기와 '스스로 드러남'의 계기가 성립하기에 현상의 양상은 4가지가 나타난다. 첫째, 그 자신에게서 스스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이를 근원적이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둘째, 그 자신에게서 자신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이를 현상의 결여적 變樣(privative Modifikation)이라 한다. φαινομενον αγαθον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나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이러한 드러남을 假象이라고 부른다. 긍정적 현상과 결여적 변양은 후자를 정초하는(funndierend)것으로서 전자가 후자에 함축되어 있는 방식으로 서로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셋째,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는 현상으로서 다른 스스로 드러나는 현상이 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현상을 告知(Sich-melden)함이 요청되는 현상이다. 이를 現象(Erscheinung)이라 한다. 이때의 '아님'(Nicht)은 결여적인 '아님'과 다르며, 이는 現象하는 것은 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現象은 어떤 다른 현상이 스스로 드러남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며, 이 現象을 가능케하는 스스로 드러남이 現象하는 것 자체는 아니다. 예를 들면 '병의 밖으로 나타난 증상'은 그 자체가 병은 아니면서 몸 속에 병이 있음을 보여주는(드러내는)표시이다. 이 규정에서 現象은 첫째(예를 들어 밖으로 나타난 증상은 병과 다르므로 병이)스스로 드러나지 않음을 의미하고, (증상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병을)告知함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몸 속에 병이 있음을 보여주는 밖으로 나타난 증상)告知하는 것 자체를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 드러나야 하며 그것이 또다시 現像이 될 수는 없기에 고지하는 것 자체는 스스로(그 자신에게서) 드러남을 의미한다. 여기서 現象은 그것이 성립되기 위하여 현상을 '전제'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넷째(어떤 증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것이 고지한 병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항상 묻혀 있어서 증상의)스스로 드러남 속에서 밝혀질 수 없는 것(das Nichhoffenbare)(병)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때의 現象을 '단순한 現象'(bloßer Erscheinung)이라 한다. 단순한 現象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음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서도 드러나지 않음이다.

이상과 같은 하이데거의 현상의 '개념'에 대한 분석은 개념에 대한 분석일 뿐 앞으로의 (현존재적인 현상에 대한)분석에는 한계를 지닌다. 그것은 假象으로 불리우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관련하고 있는 현상뿐 아니라 理象이 전제하면서 그 존립근거로 삼고 있는 현상이(가상과 理象으로 나타난 존재자의)존재나 그것의 존재 의미가 아니라 또다른 존재자일 뿐이므로, 이 현상으로 그가 현존재분석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하이데거의 현상의 양상에 대한 분류는 ("존재와 시간"의) '서론'에 알맞은, 앞으로의 현상의 양상 분류를 위한 길잡이(Leitfaden)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는 이와 같은 현상개념이 현상학적인 의미에서의 현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때그때 통속적으로 이해된 현상에 비주제적으로 선행하거나 동반되면서 이미 드러나는 現象들 가운데서 주제적으로 스스로 드러남에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현상학적인 현상이다(31). 이 기준은 비주제적인 현상을 주제화(Thematisierung)시켜 학적인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현상 '학'적인 현상인가의 여부와 일치함을 의미한다. 주제화가 현존재에 선학문적으로 알려진 것을(존재자의 영역을 일치함을 한계짓는)특정한 존재(양식)에로 기투함에 의해 가능하며(393), 학문에 대한 실존론적인 개념은 존재의 의미가 충분히 해명된 뒤에만 설명될 수 있다(357). 그러므로 주제화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존재양식(Seinsart)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현존재적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²⁾

하이데거는 또 다시 ‘탁월한(ausgezeichnet)’ 의미에서 현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³⁾. 여기서 ‘탁월하다’는 말은 “본질에 따라 필연적으로 ‘분명한(ausdrücklich)’ 제시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35). 탁월한 의미의 현상은 우선 대개는 스스로 드러나지 않고, 우선 대개 스스로 드러나는 것에 비해서는 숨겨져(verborgen) 있지만, 우선대개 스스로 드러나는 것에 본질적으로 속하면서 그것의 의미와 근거를 이루는 현상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 존재의 의미, 그 변양들과 파생태들이다. 즉 존재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 실존적이 아니고 실존론적인 것이 이 조건을 만족한다.

여기서 현상의 탁월성이라는 기준에 대한 하르트만의 해석을 살펴보기로 하자.⁴⁾ 하르트만의 우선 ‘존재와 시간’의 목적이 존재의 해석학, 즉 존재자를 오직 존재에 대한 암시적 이해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며, 기초존재론은 이 존재이해를 명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는 존재자를 근거지우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존재라는 점이 함축되어 있으며 이를 하르트만은 선협적 테제라 부른다. 선협적이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중세적인 의미에 의하면 선협적 진리로 근거지워진 것과 선협적인 근거의 관계는 원칙과 피원칙항(principiatum)의 관계로 나타난다. 궁극적인 원칙으로서의 존재는 언표불가능하다. 존재론적 이해의 지시체로서 존재적인 진리를 가능케 하는 존재가 이해의 발전적(deictic)차원에 있는 한 원칙과 피원칙항과의 관계는 유동적이다. 이에 비해 현대적 의미로는…의 가능성의 조건이라는 의미이다. 하이데거는 실존범주, 실존론적 구조라는 용어로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여 존재자의 유의미적 피투성을 설명하려 한다고 하르트만은 본다.

홋설에서는 선협적 주장이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나 하이데거는 현상학에 선협적인 틀을 도입한 것으로 하르트만은 보고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이데거 현상학은, 첫째 현존재와 세계가 우선대계의 방식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는 기술이 편파적이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하이데거의 일상성에 대한 집착의 회귀한 현상이 현상학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현상에 대한 이해적인 해석을 전적으로 지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상성은 우리에 대하여 우선이고 존재론적으로 적절한 특수한 것은 본성상 나중이다. 그러나 존재론적인 근거지움에서는 회귀한 현상을 (존재론적으로) 우선적인 것으로 본다. 둘째 명백하고 통속적인 현상과 일상적으로는 명백한 현상에 가려지나 보다 참된 것으로 나타나는 탁월한 의미의 현상화를 구별하는 현상의 이중구조(double-tier)개념을 도입한다. 이 구조를 지닌 현상은 그 감춰진 요소에 존재와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지시가 있고 그 존재와 존재론적 구조가 명백한 현상을 평가하게 된다.

2) 존재양식에 대한 분석은 본 논문의 논지를 벗어나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또한 존재양식과 양상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Seinsart-Art, Seinsmodus-Modus, (또 이와 관련된 Seinsweise-Weise)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왜냐하면 독일어의 일상어법상 Art와 Weise를 별 구분 없이 쓰기에 하이데거 용어상의 Seinsart와 Seinsweise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그 자신이 이 두 개념을 구별없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구별하려는 노력(그 예로는 232의 Vor구조를 주시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이 역시 논의의 장을 달리하여 다루고자 한다.

3) 기준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하이데거의 현상에 대한 記述은 현상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지니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현상에 대한 기술이기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현상을 가려내는 척도로 기능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4) Hartmann, Klaus, “The logic of deficient and eminent modes in Heidegger”,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1974. (이하의 본문에서는 LH로 略함), 118-120.

하이데거적인 현상학적 분석은 명백히 주어진 것(의미)과 생소한 존재(근거, 구조, 실존적 특징)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매개한다. 그 매개는 순환적인 방식이다. 존재자가 존재와 그 구조에 대한 지시에서 밝혀지고 존재는 개시된 존재자에 근거해서만 드러나므로, 선형적 존재론적 구조와 그 존재적인 예화(*instantiation*)나 존재적인 수행(*implementation*)의 관계는 실존론적-실존적의 관계, 원칙과(존재적인) 상관자, 선천적-후천적, 심층현상과 표면현상의 상관관계와 상응한다. 실존적인 규정이 단순히 후천적이거나 경험적이지는 않으나 선천적인 규정을 지시한다. 이런 결과 때문에 하이데거의 현상학이 선형적인 의도를 나타낸다.

현상의 이중층 구조는 존재적 피해석항과 존재론적 해석적 관점 또는 존재론적 구조처럼 연관되어 있다. 어떤 피해석항은 특정한 관점에서 본 존재에 대한 지시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 이상의 관점이 가능하며 이런 관점들을 하이데거는 존재양식(복수로는 존재방식들)이라 한다. 존재양식은 범주적 구별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론적 구별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존재양식은 실존범주의 용어나 범주의 용어로 인표가능하다.

어떤 존재양식 또는 구성틀을 가진 존재자는 존재자를 해석가능케 하는 존재양식들에 접근가능케 한다. 이러저러한 존재양식을 지닌 것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지시는 ‘자기’ 존재에 대한 지시와 ‘다른 존재자’의 이러저러한 존재양식에서 개시된 다른 존재에 대한 지시를 포함한다. 이를 하르트만은 선형적 태도에 대한 존재론적 Version이라 한다.

이상과 같은 하르트만의 입장에 대해 라헨만의 하르트만의 비판은 일관성을 띠고 있지만 이는 그가 철학적 진리가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본다⁵⁾ 오히려 라헨만은 철학적 진리가 실존적 진리에 의해 침투되어 있어서 논리적 진리에 대해 우위에 있으며 ‘존재와 시간’은 논리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또한 논리로는 불가능함을 주장한다.

하르트만이 ‘존재와 시간’의 논리적 잘못을 발견하려는 태도는 하이데거의 저술이 라이프니쓰나 헤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이전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하고 전혀 다른 사유방식을 하이데거가 발견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궁정적, 결핍적, 탁월한 양상이란 분류는 불충분하나 ‘존재와 시간’의 목표에 충실하면서 더 발전시키려 했던 후기사상을 고려할 때 그 불충분성이 드러난다. 즉 존재자의 존재의미에의 접근이 현존재의 실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존재의 예비적인 의미를 초월로 본 점, 또한 존재적-존재론적, 실존적-실존론적 구별과 같은 것을 포기한다고 라헨만은 본다(PE 60).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의 잠정적인 의미가 시간이며 본래적인 시간은 숙명(Geschick)으로서의 시간이 나중에 존재의 진리라 부른 사건(Ereignis)의 다른 이름이다. 존재자의 존재의 의미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생기의 사유에로 들어가야 한다. ‘존재와 시간’의 형이상학적 용어는 형이상학적에서 해석학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방식이며 후기의 비형이상학적 용어법이 그의 생애 전체의 목표인 철학적 진리에의 접근과 좀 더 부합한다.

이상에서 크라우스 하르트만과 라헨만의 견해를 통하여 넓게는 하이데거의 양상분류가 존재론적 해석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삼아야 될 것은 현상의 탁월성 기준에 대한 이들의 해석이다. 크라우스 하르트만은 선형적 테제와 현상의 이중층 개념으로 탁월성 기준을 해석하고 있으며, 라헨만 역시 그러한 해석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의도와 목적이 존재론적인 것의 무근거성에 있음을 보이려 한다. 이들의 선형적 해석에는

5) Lachenman, Daniel “Philosophic truth and existentiell : The lack of logic in ‘Sein und Zeit’” *JBSP*, 1981, (이하의 본문에서 이 논문에 대한 인용은 PE로 略함) 58-61

일종의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그것은 ‘존재와 시간’의 제 1부에서만 현상의 양상분류가 행해지고 있으며,⁶⁾ 제 1부에서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해석없이 존재에 대한 해명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탁월성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현상은 그 존재의미에 대한 해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존재의미에 대한 해석이 (우선은 직접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존재해명이 충분히 선형적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 점을 세 양식에 대한 실제적인 분류를 추적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현상의 세 양상

1) 궁정적 양상

현상에 대한 형식적인 규정에서 궁정적인 양상은 ‘그 자신에서 스스로 드러남’이다. 이를 탁월성 기준에서(현상의 이중개념에서)해석한다면, ‘우선 대개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우선 대개는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존재를 스스로 드러냄’이 된다. 이를 실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대개 스스로 드러나는 실존적 가능성’이 그것의 실존법주(또는 구조)를 스스로 드러냄’으로 이해된다. 어떤 실존법주에 상응하는 현존재의 방식은 다양하고 많다. 이 다양한 실존적 가능성이 아무 장애없이(하이데거의 용어로는 ‘투명하고(durchsichtig) 자유롭게(frei)’(122)) 그것을 근거지우는 실존법주를 드러낸다는 것은 양자 사이의 同義語性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실존적 가능성에 대한 記述 이상의 해석학적인 진단이 불필요하다(LH123). 배려(Besorge)는 실존론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57, 193) 또한 ‘우선 대개’에서 만나는 일상적 평균성에는 실천적으로 실존성의 구조가 들어 있으므로 현존재는 일상성은 궁정적으로 배려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배려의 현상은 궁정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 고려(Fürsorge)에 있어서도 뛰어들면서 지배하는(einspringend – beherrschend) 고려와 뛰어나가면서 자유로워지는(vorspringend – befreidend)고려는 궁정적인 양상이다(122).

궁정적인 현상이 실존적 가능성으로서 아무런 장애없이 실존법주를 드러내기에 자신을 근거지우는 실존법주가 어떻게 근거로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선대개의 일상적 평균성을 비본래적이다. 궁정적인 현상은 존재의미가 자명하다고(selbstverständlich)느끼기 때문에 근거로서의 존재를 은폐하고 막각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즉 궁정적인 현상은 자신의 근거인(탁월한 의미의)현상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현상적으로 이중부정을 나타낸다. 이 점에서 망각의 부정(not)의 구조와 같다. 망각은 어떤 것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잊어버렸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한다. 반면에 결핍적 양상들은 어떤 것이 갈망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는 상기할 수 없으나 어떤 중요한 것이 잊혀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유사하다(PE 67).

2) 결핍적 양상

실존론적 – 실존적 관계에서 결핍적 양상의 개념이 나타난다(20, 57). 현존재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고려와 같은 실존법주를 인정하면 권태, 고독, 무관심과 같은 실존적 사례가

6) 크라우스 하르트만이 탁월한 양상이 ‘존재와 시간’ 제 1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LH 132)은 잘못된 것이라는 라헨만의 견해(PE 68)가 올바른 것이며, 제 2부는 대체적으로 탁월한 양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 양식에 대한 분류가 문제되는 것은 ‘존재와 시간’ 제 1부에서이다. 이점은 특히 하이데거의 탁월성 기준이 ‘우선 대개’의 일상성의 지평에서 주어진다는 점에서 생겨난다. ‘우선 대개’의 지평은 현상적 적합성을 위한 기준이며 현상의 균원성을 위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

생겨난다. 크라우스 하르트만에 의하면 결핍적 양상의 도입은 두가지 방식이다(LH123). 의도적인 행위의 부정 내지 결여와 적극적으로 '다른' 행위를 포함할 때 나타난다. 양자 모두 정상적인 실존적 해위에 비해 결핍적이다. 정상적으로 결핍적 양상은 세계내존재와 같은 구조전체성 내에서 하나의 구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때 실존론적, 차원 사이에는 부정의 관계와 선협적 의존의 관계가 있다.

라헨만은 결핍적(defizient)이라는 개념을 밝힌다.(PE 65) 논리적으로는 어떤 것이 같은 정도로 다른 사물이 아니다. 만일 X, Y, Z가 있고 서로 동일하지 않다면 not-X는 Y이거나 Z이다. 결핍인 존재는 그 가능성에 있어 그것이 아닌 것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생명없이 시체가 없으나 시체는 생명없음이다. 시체의 존재가 생명에 의존하기에 생명은 무생명인 바위에 관해서보다 시체에 의해 더 잘 드러난다. 논리학은 not을 부정의 형태로만 생각하고 실존과는 무고나하게 생각한다 (WH, SZ 285-6) 그러나 결핍에서만 그것의 비존에서 가능한 것을 갈망할 수 있다. 실존적 가능성의 존재를 갈망하게 함으로서 결핍적 양상은 논리의 도움없이 실존범주를 드러낸다. 하르트만의 논증은 시체가 생명에 있어 결핍적이고 바위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우리의 실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즉 실존적으로 현상을 접근하지 않으면 실존성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13). 결핍적 양상이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없고 비현상학적 전제에서 벗어나고 그것없이 현상을 보도록 하므로 여기서 선협적 차원에 들어간다. 선협적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존재와 비존재가 실존범주하는 동일한 것으로 서로 다른 측면으로 나타난다. 논리학에서는 실존범주와 실존적 가능성을 존재적으로만 생각함으로써(cf. 88) 실존범주가 실존적 가능성안에 있든가 있지 않든가이며 실존범주의 비존재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결핍적 양상들은 주어진 실존적 가능성이 무시되고 망각되어도 가능성 자체의 영역으로서의 실존범주가 현존재의 실존을 관통해 남아 있다.

결핍적 양상에 속하는 현상들은 단념, 포기, 태만, 휴식의 배려 방식들과, 배려의 가능성들과 관련해서 '아직 더'(nur noch)의 모든 양상들이며(57), Um-zu의 구조에 놓여 있는 지시(Verweisung)도 이에 속한다(31, 68). 이들은 모두 세계와의 고려적인 관계맺어야 함(Zu-tun-haben)의 결핍이다(61). 고려에 있어서는 상호 우호성, 상호 적대성, 상호 불간섭, 상호 무관심등의 가능성 방식이 결핍적 양상이다.(121)

라헨만은 결핍적 양상의 현상이 가진 성격을 다음 네가지로 요약한다(PE 66, 67). 첫째 결핍적 양상은 실존범주의 선천성(apriority)을 알려줄 뿐 개시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스스로 드러냄의 스스로 드러내는 작용은 숨겨진 채 있기에 존재의 양상으로서의 결핍적 양상은 근본적으로 발견적이다. 셋째 실존범주의 선천성만을 알려주기에 결핍적 양상들은 존재론적 차이의 관점에서의 이 선천성에 대해 모호하다. 그것의 결여에서 실존범주가 선정선 면에서 완전히 독립적이기에 존재론적 차이를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모호성 때문에 하이데거가 철학적 언어를 버리고 시적 언어를 택하게 된다. 이 모호성은 방법적으로는 필연적이다('존재와 시간' 9판의 하이데거의 Vorbemerkung 참조). 모호성이 논리적 대상들을 존재론적인 대상으로 전환시키며 실존범주를 실존적인 것을 근거지우는 관계와 독립적인 것으로 만들므로써,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존재적 구별을 배제시키고 존재적 존재론적 관계를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한다(PE 66, 67).

3) 탁월한 양상

불안이 정태성의 탁월한 양상이며 여기에는 세계의 세계성과 존재자의 존재를 개시하는 심려의 개시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탁월한'이라는 표현은, 존재의미에 대한 물음의 관점에서 현존재의 중요성에 관하여(14), 가장 철저한 개별화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함축하는 한에서의

현존재의 초월에 관하여(38), 존재자의 존재인 스스로 드러남의 현상에 관하여(35)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현존재에 의해 그때그때 이미 수행되었음’(415)이다.

이러한 의미 또한 불안이라는 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단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존재가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존재이며, 현존재의 수행을 통해 개시성 자체를 드러낸다는 점이 밝혀진다.

불안은 긍정적이라기보다 결핍적으로 그 존재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개시성의 정태적인 개시로서의 불안은 근거개념과는 독립적으로 실존범주인 개시성을 보여주기에 긍정적도 결핍적도 아니다. 모든 실존적 가능성이 실존범주로부터 그 가능성을 획득하며 개시성에 없이는 불안이 없으므로 실존적 가능성으로서의 불안과 실존범주로서의 개시성은 상호의존적이며 등근원적이다. 이 등근원성은 논리적 관점에서는 순환적이다. 하르트만은 이 등근원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선형적 사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 것 (LH 133, 4)은 예화로서의 실존적 가능성이 어떻게 개념으로서의 실존범주의 우위를 지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지 못한 것이다. 불안이 개시성의 예로 간주될 수 없고 오히려 실존론적으로 실존적이고 개시성의 이해가 우리들이 어떤 있을 수 있음에 의존하는 한 개념과 같은 것일 수 없다(PE 69, 70).

세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 하르트만은 이 분류가 선형적인 테제에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려고 하며 라헨만은 이 테제에의 연관에서 볼 때 양상 분석의 실패(라는 하르트만의 지적)은 후기 철학에서 보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이 양상들을 분석하면서 근본적으로 놓친 점은 각 양상들이 그 성립을 위해 선형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각 양상들을 각기 독립적, 自存的으로 다룬 데서 드러난다. 이와 같은 양상 이해에는 보완이 요청된다. 비록 ‘존재와 시간’의 ‘서론’에서의 양상개념 도입이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각 양상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 긍정적 양상과 결핍적 양상이 탁월한 양상에 기초지워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점을 밝히는 것이 양상에 대한 이해와 존재론적 구별에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4. 세 양상들 사이의 관계

앞 절에서 제시된 긍정적, 결핍적, 탁월한 양상에 대한 분류를 ‘존재와 시간’의 서론에서 제시된 현상의 형식적 개념규정에 의한 양상분류와 비교해보면 결여적 변양(내지 양상)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여적 변양이 긍정적 양상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긍정적 양상과 결핍적 양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탁월한 양상에 기반해 있음을 위에서 말했었다. 달리 말하면 탁월한 양상을 전제하고서야 긍정적 양상과 결핍적 양상은 현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두 가지 사실, 즉 구조적 연관성과 전제적 연관성이라는 사실로부터 현상의 각 양상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제 그 연관성이 어떻게 현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결핍적 양상의 현상은 존재구조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발견술적(heuristic)이다. 예를 들어 도구의 지시를 통하여 배시 아래 이미 보여진 전체로서의 도구연관과 세계가 드러난다(75).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발견술적이기 위해서 존재적인 逆說을 일으킨다. 하나의 도구가 사용 가능하지 않을 때 Um-zu의 Dazu에 대한 구성적인 (Konstitutiv) 지시가 혼란을 일으키며, 이러한 지시의 혼란(Störung)이 오히려 지시를 분명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76). 결핍적 양상의 배려에서 세계가 해명될 때 도구존재자는 탈세계화되어 단순한 目前存在(Nur-Vorhandensein)만이 드러

나게 된다. 오히려 세계를 고지하지 않음(Sich – nicht – melden) 도구존재자가 눈에 띄지 않음(Unauffälligkeit)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음(Nichtheraustreten)의 가능성의 조건이 되고 (75), 이 때 눈에 띄지 않음과 같은 결여적인 표현이 도구존재자의 ‘존재’를 해명하는 데는 긍정적 성격을 띤다. 존재 해명에 긍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환경세계적인 배려만 가지고 도구존재자를 파악하는 것으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존재자에 대한 존재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76, 77). 지시의 혼란과 세계를 고지하지 않음과 같은 존재적인 결여(Privation)이 존재 해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결핍적 양상에서의 존재적인 역설은 현존재의 개시성에, 현존재의 탁월한 개시성으로서의 불안이라는 근본정태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실존적 – 존재적으로 퇴락에서는 현존재가 자신으로부터 도피한다. 이 도피 속에서 현존재는 본래적인 자기존재 가능으로서의 자기 자신앞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하지만 존재적 – 실존적 성격과 존재론적 – 실존론적 해석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실존적으로는 퇴락에서 자기존재의 본래성이 폐쇄되지만(verschlossen) 실존적으로는 이 폐쇄성이 개시성의 결여(Privation)로, 즉 도피가 자기자신으로부터의 도피로 드러난다. 현상이 근원적이면 근원적일수록 존재에 대한 해명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184 – 185). 물론 개시성의 존재적인 부정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함을 통해서이며 불안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밝혀진 것처럼 결핍적 양상에서 존재적인 역설처럼 보이는 것이 탁월한 현상에 있어서는 존재론적 – 실존론적 해석에 있어서의 근원성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핍적 양상의 현상이 존재해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존재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3절에서 밝혀진 것처럼) 탁월한 개시성으로서의 불안에서 현존재의 존재에 대한 해명이 가능하므로, 결핍적 양상이 탁월한 양상을 전제해야만 존재론적으로 긍정적인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긍정적 양상에서는 실존적 가능성과 (존재론적 규정인) 실존범주 사이에 동의어성이 성립함을 위에서 말하였다. 이러한 동의어성의 근본적으로 ‘인간 현존재가 문제삼고 있는 존재가(실은) 나 자신의 존재이다’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전자의 존재는 내 세계적인 존재자를 비롯하여 현존재자신을 포함하는 존재일반을 의미하며, 현존재가 이렇게 존재일반을 문제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푸르다’, ‘나는 기쁘다’와 같은 언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후자의 존재는 현존재자신의 존재에 한정된다. 존재일반을 문제삼을 수 있는 존재는 현존재뿐이다. 이 때문에 현존재라는 존재자를 존재음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예가 되는 (exemplarisch) 존재자로 택하게 된다. ‘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리에게 우선적인 것으로서의 개별적인 것이 사태에서 우선적인 것을 이미 함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類比的인(analogisch) 의미와,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우가 전체의 규범(Norm)과 절대적 형상)(Form)으로 가능하는非類比的인 의미(예를 들어 예수의 경우)로 사용된다.⁷⁾ 현존재해명이 존재일반의 존재해명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은 현존재라는 존재자가 비유적인 의미로 예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불안의 현상에서 밝혀진 현존재의 존재는 개별화된 존재이다(187). 또한 세계의 세계성이 개념적으로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성 자체를 개시하므로써 내세계적인 존재자들의 존재를 밝혀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로써 현존재의 존재가 지닌(존재적 – 존재론적인 우위라는) 특수한 지위가 입증된다(194). 그러므로 배려를 통해 내세계적인 존재자는 존재와 세계성을 전제하고 있는 긍정적 양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양상이 성립할 수 있어야만 한다.

7)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중 Exemplar 항목 참조. 여기서의 유비성은 하이데거적인 용어로 말하면 등근원성(Gleichursprünglichkeit)이다. 등근원성이란 ‘동일하게 근원적’이라는 의미이며 ‘동일한 근원을 가진’의 의미는 아니다.

현상의 양상들의 연관은 통해 나타난 바는 현상을 통해 존재론적 구조에 이르는 것은 탁월한 양상에서 드러나는 현존재라는 존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존재적이고 실존적인 것은 하나의 양상에 속하며 이것들은 현존재의 존재이해에 의해 규제되고 개시된다.(20). 현존재의 존재이해는 비록 애매하고 평균적이지만 하나의 사실이다(5). 존재이해의 철저화를 통해 본래적인 존재론적 규정에 도달할 수 있다(15). 그러므로 현상에서 곧 바로 존재론적 규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의 존재이해를 거쳐야 하며, 선형적 테제는 2항관계가 아닌 3항관계에서 성립한다. 현존재이해에 대한 해석이 요청되므로 선형적 테제는 해석학적 진단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현상의 양상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살펴본 목적은 간접적으로 하르트만과 라헨만의 분석이 지니는 단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며, 직접적으로는 현상의 구조를 밝혀보고자 하는 데 있다. 두 사람의 분석은 주어진 현상을 분류하고 그 안에 내포된 개념의 얼개를 끌어내는 데에만 머물고, 그 현상과 개념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들 사이의 관계, 즉 주어진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다른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논의(Argument)를 통해 제시되어야 하며 단순한 분류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하르트만의 현상의 양상이 지닌 논리에 대한 거부감은 오히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의 서론에서 제시한 ‘구조적 기초지움’과 ‘전제적 기초지움’이라는 양상 논리 분석의 가이드라인을 놓친데 기인한다. 또한 두 연관을 통해 밝혀진 현상의 구조는 ‘존재적 양상 – 현존재의 구성틀 – 존재론적 규정’이라는 3항 관계이다. 여기서 중간항인 현존재의(존재적 – 존재론적) 구성틀이 적절하게 해석되었는가, 즉 해석학적 진단의 필요성이 대두한다.

해석학적 진단의 필요성은 두 가지를 노린다. 첫째, 양상개념에 대한 이해이다. 모든 존재적, 실존적인 것은 하나의 양상에 속한다. 그러나 개체가 양상은 아니기에 어떤 실존적인 ‘것’이 실존론적 구조의 양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양상을 존재양식 또는 구조를 수행하는 실존적인 방식(LH122)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규정에는 3항관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양상은 ‘존재양식 또는 구조를 수행하는 존재자의 존재적인 방식’이다. 둘째, 현상의 양상에 어떤 논리가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이다. 양상의 분류가 존재론적 탐구에 의도적이었듯이 양상의 논리는 그 분류목적과 결부시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양상 그 자체의 논리만을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양상의 논리는 현존재의 존재이해와 균원적, 등근원적 관계에 있는 존재론적 규정을 밝히는 데 유효하다.

5. 맺는말

앞절의 논의를 통해 밝혀진 것은 탁월한 양상을 중심으로 긍정적 양상과 결핍적 양상의 현상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며,⁸⁾ 그 결과 존재적인 역설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함과 개별화된 존재의 유비적인 의미가 드러났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현상의 탁월성 기준을 검토해보자. 현상의 배후에 있으면서 우선 대개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즉 우리에게는 나중이고 사태적으로는 우선인)

8) 양상의 분류에서 나타난 것처럼 배려(또는 고려)에 있어서 긍정적 양상과 결핍적 양상이 둘 다 가능하다는 점은 두 양상이 서로 무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양상들 사이의 연관이 필연적으로 지평개념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용어사용에서 ‘지평’의 개념만큼 다양한 다른 표현을 가진 것도 드물다. 긍정적(positiv) – 금지적(prohibitiv) 성격, 현상적 적합성(phänomenale Angemessenheit), 해석학적 상황, 구성틀(Derfassung) 등의 표현에 관련시켜 논의의 장을 달리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근거로서의 '현' 존재는 개체화(Individuation)로 해석된 유비적 존재로서의 선형성을 지니고 있다 (38참조). 이런 특징을 지닌 현존재에 대한 분석은 선형적이라기 보다도 충분히 해석학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 그것은 우선 대개 스스로 드러나는 현존재의 존재이해를 바탕으로 우선 대개 드러나지 않는 존재구조와 존재의미를 드러내려 한다는 점에서, 또 비현존재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현존재가 실존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한 실존의 실존성 분석으로 현존재의 존재 해석(Auslegung)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37, 38). 또한 충분히 선형적이라기 보기에는 미흡하다. 탁월성 기준에서는 존재의미, 그 변양과 과생태까지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언급된 양상의 개념을 이제 밝혀보기로 하자. 양상은 우선 존재론적인 구별에 관계했었다. 모든 존재적, 실존적인 것은 하나의 양상에 속한다. 하지만 실존적인 어떤 '것'이 실존론적 구조의 양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개체들은 양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상이란 존재양식 또는 구조를 수행하는(ausarbeiten) 실존적인 방식을 의미한다(LH 122).

하르트만과 라헨만의 논문은 이제까지 하이데거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간과했던 현상의 양상문제를 다루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탐구에 대한 해명에 기여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존재 분석을 통해 기초존재론이 하나의 길(weg)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참고 문헌

1. Heidegger, Martin, *Sein und Zeit*,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72
2., "Was ist Metaphysik ?" (*Gesamtausgabe Bd. 9*, Wegmarken 중)
3. Hartmann, Klaus "The logic of deficient and eminent modes in Heidegger"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이하 *JBSP*로 略. 1974, P118-134.
4., "No logic of Modes in Heidegger", *JBSP*, 1981. p74-75
5. Lachenmann, Daniel "Philosophic truth and the existentiell : The lack of logic in 'Sein und Zeit'", *JBSP*, 1981 p 55-73
6.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Schwabe & Co. Basel, 1971